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호 【루계 제25179호】 주체105(2016)년 2월 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자

오늘 농업부문앞에는 비상히 높은 전투목표가 나서고있다.

비록 애로와 난관이 의연히 겹쌓이지만 당에서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할 지상의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날 농사는 곧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결사전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비롯한 알곡생산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처럼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농업생산에서 큰 전진을 내짚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고립압살책동, 예년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어느 부문보다 커다란 난관을 겪었지만 농업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알곡증산을 위한 가치있는 경험들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 다수확을 거둔것은 매우 귀중한 성과로 된다. 그러나 현실은 농사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것은 쌀이다. 쌀만 많으면 앞으로 그 어떤 최악의 역경이 닥쳐온대도 두렵지 않으며 자강력으로 얼마든지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다. 인민생활을 보다 안정향상시키고 사회주의대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절대로 미룰수도 드틸수도 없는 사활적인 투쟁이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절대불변의 의지가 새겨져있다.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면 뭐니뭐니해도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대풍을 안아와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위업과 힘찬 전진에 당황망조한 원쑤들은 지금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을 허물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표를 식량난조성으로 정하고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다.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나라의 쌀창고가 든든하면 우리의 사회주의는 금성철벽이다. 우리의 힘으로 생산한 쌀이 가득가득 넘쳐날 때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된다.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려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미래를 담보할뿐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권위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직결된 정치적문제이다. 투쟁과업은 아름차고 정세는 엄혹하지만 당의 농업정책과 알곡증산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이 있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올해농사의 승산은 확고하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반드시 전례없는 풍작을 이룩하여 쌀로써 당과 혁명을 더욱 철저히 보위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와 애국열의를 안고 농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이다. 이 나라의 유명무명의 혁명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땅,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물려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재부인 땅을 다름아닌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꾸어가고있다.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증산의 비결, 풍요한 가을은 자신들의 정신력에 달려있다는것을 심장에 조아박고 그 어느때보다도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자각, 한줌의 거름이 되여서라도 어린 모를 살찌우겠다는 각오, 좋고 나쁜 땅을 가림없이 애국의 땀방울을 깡그리 바치려는 피타는 열정,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시식량증산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내댄 농민영웅들처럼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죽으나사나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결사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여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도, 시, 군들에서 다수확을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올해농사에서도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최근년간 농업생산에서 소문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시와 군, 농장들의 경험은 자강력이야말로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 다수확을 얻게 하는 근본원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강력으로 다수확을 내는데서 기본은 종자이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이 육종한 벼, 강냉이, 콩 등의 많은 우량품종들은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난해 최악의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하고 다수확을 낸 염주군과 룡천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처럼 자기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다수확의 중요한 열쇠는 우리 식의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재배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는데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자기 지방, 자기 지대의 토양별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좋은 재배방법을 널리 도입하고 창조해나가야 한다. 최근년간 선진적인 모형대를 받아들여 산골포전들에서 전례없이 높은 소출을 낸 양덕군과 회창군안의 농촌들의 경험과 소식재배, 불경재배, 이랑재배를 비롯한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으로 소출을 높인 평안북도, 함경북도안의 농장들의 경험이 이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지력을 높이는것은 다수확의 필수적조건이다.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도 하고 소석회로 산성화를 막으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실리있게 세워 질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 후민산카리를 비롯한 각종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많이 내야 한다.

자강력으로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원만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 협동벌마다 우리의 농기계바다가 펼쳐지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문제는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키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충직하게 받드는 문제이다.

지난해 문덕군에서는 20여대의 벼종합수확기를 리용하여 지난 시기보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면서도 알곡을 정보당 평균 700kg 더 거두어들였다. 이것은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알곡생산을 더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자체로 많이 생산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뜨락또르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 련결농기계공장들은 농업전선의 병기창이다. 우리는 뜨락또르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 련결농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아무리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통이 크게 내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알곡생산을 높이려면 농업전선에 비료를 팡팡 보장해주어야 한다.

비료는 농업전선에 절실히 필요한 탄약이나 같다. 비료이자 곧 쌀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업전선에 비료를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으로써 농업전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기와 생육기일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여러가지 비료를 제때에 신속히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다. 남흥과 흥남의 로동계급은 상원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이악하게 투쟁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전국의 농촌들에 주체비료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온 나라가 농촌을 성심성의껏 도와나서야 한다. 오늘날 농사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밥먹는 사람이라면 당과 혁명이 절실히 요구하고 사회주의의 운명, 자기자신들의 운명과 잇닿아있는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알곡생산문제를 놓고 걱정할줄 알아야 하며 자기가 바치는 힘이 그대로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농업전선을 힘껏 도와나서야 한다. 과학자들은 자기의 애국심이 과학농사에 기여하는데서 검증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의 선봉에 서야 할 사람들은 일군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포전에 나가 대중과 머리를 맞대고 걸린 고리를 찾아 제때에 풀어주며 앞채를 메고 이신작칙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농장의 농사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관점을 지니고 늘 머리를 쓰면서 헌신분투하여 모든 포전들에서 다수확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힘있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은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은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협동벌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대중의 심장에 새 기적, 새 기록창조의 불을 지펴주는 불씨가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며 강력한 선전선동공세로 사회주의전야에 새록의 붉은기가 펄펄 나붓기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힘차게 내달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림으로써 우리 당을 쌀로써 옹위하고 황금벌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탄자니아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다르 에스 살람

탄자니아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탄자니아혁명당창건 39돐에 즈음하여 귀 당 전국집행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2월 4일 평양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월 19일 로므니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비쎌례 오롤떼아누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4돐경축 베닌사회주의당준비위원회가 1월 25일 꼬또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서기장으로 베닌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그바혼조 쥬스땡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경축 이란준비위원회가 1월 27일 테헤란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적극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4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꼬스쩬꼬와 협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드미뜨리 꼬스쩬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앙골라준비위원회가 1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메신문사 사장 에마누엘 반제이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표시하며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는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강연회, 좌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가 1월 2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동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안또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훌륭히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준공식 진행

당의 은정속에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으로 개건되였다.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고도로 집약화되고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인민들과 체육인들속에서 호평받는 갖가지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준공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리종무체육상, 관계부문,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련관단위 교원, 연구사들, 개건공사에 참가한 속도전청년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속에 일떠선 공장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장의 개건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에 공사를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이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건보수공사를 끝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종합적인 체육인식료품생산기지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으로 전변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뜻과 정으로 따르고 신념과 의리로 받들며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 진정한 전우, 참다운 선군혁명동지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체육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여러가지 맛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여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훌륭히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안변림산사업소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앞당겨 수행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온 안변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통나무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면서 그 돌파구로 되는 산지통나무생산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지난해 겨울철생산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은데 맞게 이들은 모든 력량을 산지통나무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소대들에 내려간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산판에 올라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산지통나무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첫 수소판의 장쾌한 뢰성을 승리의 포성으로 이어갈 굳은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1, 3, 4소대의 로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발구운재와 통쏘이를 적극 받아들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2소대와 새로 조직된 5소대의 통나무생산자들도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새벌장에 통쏘이길들을 잘 정하고 통쏘이에 의한 나무나르기의 비중을 높여 많은 통나무를 연유를 쓰지 않으면서 나무터들에 쌓아놓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운수소대와 공무소대의 로동자들은 자동차들에 대한 점검을 깐지게 하여 그 실동률을 높이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가공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사업소종업원들의 안해들도 가족소대를 뭇고 산판에 올라 물심량면의 지원과 함께 아지따기와 통쏘이길관리 등 로력적지원으로 남편들이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뜻깊은 올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린업성적으로 제일먼저 앞당겨 수행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

우리 당의 구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온 나라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손에손에 회의소식이 실린 당보를 들고 열정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인민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의 앞날은 그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또 얼마나 세인을 놀래우는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할것인가.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뻐스들에 새겨진 글발도 의미심장하게 안겨든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공장에서도 농장에서도 당조직이 있는 곳이라면 이 땅의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구호이다.

력사적인 회의에 앞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 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개회를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뜨거운 회의정신을 새겨안을수록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의 의미가 심장마다에 파고든다.

우리 당이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든것은 지난 세기 90년대의 언덕에서였다.

우리는 추억의 노를 저어간다.

주체79(1990)년 정월 초하루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자면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신성하고 엄숙한 이 부름은 온 나라 인민을 뜨겁게 안은 우리 당의 목소리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파동속에서 인민앞에 더욱 굳게 다지신 력사의 맹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나 새겨져 빛을 뿌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는 인민을 위한 복무를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신조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한길을 걸어온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보다 더 좋은 인민은 세상에 없다고 자주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많이 부르고있는데 그 노래도 나에게 큰 힘을 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나는 우리 인민이 부르는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들을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서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군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좋은 인민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인민복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과 수령께 충직한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는 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시였다.

강성국가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사변들이 이룩되던 주체98(2009)년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즘 꿈을 꾸어도 좋은 꿈만 꾼다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들이 잘살게 되는 꿈이다고, 홍할 징조, 좋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앞에 우리 인민을 강성국가의 대문안에 들어세웠다고 떳떳이 보고드릴 그 순간이 매일, 매 시각 나의 심장을 끓이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정녕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이 세상에 없는 수령복속에 값높은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려온것 아니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 실리여온다,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 음성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주 쓰신 두가지 표현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에게 기쁨이 안겨진데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면 인민들이 좋아하오라고 물군 하시였고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아셨을 때에는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하시며 가슴아파하시였다.

어느해 2월의 명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하고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주하신 생일상은 다름아닌 합숙밥이였다.

일군들에게 뉘가 많은 합숙밥을 보고 생각되는바가 많다고, 집에서는 알알이 뉘를 골라내며 밥을 하는데 합숙들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것도 그렇고 쌀에 뉘가 많다는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것도 그렇고…나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하는가 하는것을 두고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하신 어조.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데 당일군들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고,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밥그릇에 한컴의 뉘라도 섞일세라 알알이 골라내며 정성을 쏟아붓듯이 인민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사색은 이렇듯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행복하게 할것인가 하는데로만 지향되여있었고 옮기시는 걸음걸음은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사랑의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루동안에만도 전선에서 공장과 농촌으로, 서해지구에서 동해지구로 오가시며 초인간적인 강행군길에 계신 잊지 못할 사연들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폭염속에 땀으로 젖은 야전복이 마를새없이 초소와 공장, 농촌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 비웁는 사람마다 가슴이 저려나 다문 얼마만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장군님께서는 나를 생각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고맙다고, 그러나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린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고 하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나의 병사들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호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손길이 있어 온 나라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고 천만군민은 아버지를 따르는 자식들이 되여 그이의 두리에 일심의 성새를 쌓았다.

인민은 위대한 수령의 은덕을 마음에, 심장에 아로새긴다.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며 따뜻이 품어주고 애지중지 키워주며 온갖 정을 다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사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일심단결강화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당,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이라고 하시면서 장장 수십성상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사소한 오유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만을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월계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다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크나큰 격정이 온 나라에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천리라도 만리라도 가리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것이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모두의 불타는 맹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기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을 뿌리고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중앙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갈것이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천만군민이여!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보다 더 큰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본사기자 김철혁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조국땅 북변에서 분계연선마을까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조국땅 북변에서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천하를 진감시키며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고들으며 누구나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더욱 꽃펴나고있음을 절감하는 천만군민의 마음은 뜨겁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받들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줌으로써 인민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겠다는 토론이 진행된데 대한 소식을 읽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의해 조국의 북변에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들은 그 얼마였던가.

해방된 이듬해 봄날 어느 한 농촌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 마을로인들은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던 평생소원이 풀렸다고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의것이라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주신 땅,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라 농민들에게 주신 최대의 사랑이였다.

어찌 농민들만이랴.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눈굽을 적시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인민사랑은 곧 우리 당의 정치였고 그것은 일심단결의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풀어야 할 기본문제는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보장문제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몇만kW의 전기보다 여기에서 철수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의 생활을 당에서 돌보고 나라가 돌봐주는것이 바로 로동당의 정책이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뜨겁게 울려어온다.

인민의 생활을 돌보아주는것이 로동당의 정책이고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하신 바로 여기에는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이 놓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분계연선지구의 세쌍둥이와 산모를 위하여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신의주지구에 큰물이 났을 때에는 인민군부대들이 동원되여 인민의 생명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었던가.

기쁠 때도 그러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의 운명을 책임져주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원칙이 구현되는 나날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최고강령으로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국의 북변에서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 인민에게 주고계신다.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 정으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의 파시인가, 우리 조국의 북변에서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림정호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

농민들도 참가한 뜻깊은 회의

어느해인가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의 형편과 살림살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과정에 농민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며칠후였다. 그 마을의 일부 농민들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을 때 거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도 있었다.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농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도 참가시켜 회의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협동농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추켜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련의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평범한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중요한 회의에까지 참가하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농민들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력사의 그날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나갈 결의가 세차게 맥박치였다.

참 좋은 인민이라 하시며

언제인가 자강도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기계공장에 대하여 교시하시다가 문득 그 공장 생산현장에서 만나보신 쌍둥이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쌍둥이형제들이 기특하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10년전에 그 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나어린 로동자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희한한 닭고기와 닭알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일이 있는데 자신께서는 그가 너무 기특하여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었다고, 자신께서는 그 공장을 현지지도하고 돌아가서도 그들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군 하였다고 감회깊이 이야기하시였다.

10년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한 나어린 로동자를 잊지 않고 최고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한날한시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기쁨속에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당의 은덕을 잊지 않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맡은 일을 더 잘하도록 늘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고 각근히 이르시고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다시금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수령은 인민을 참 좋은 인민이라고 부르고 인민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며 한집안, 한식솔로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을 말해주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옳바른 인민관을 지니도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신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인민에 대한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곳곳마다에서 눈에 띄게 알리는 유희장을 돌아보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내의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난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더니 허리를 굽히시였다.

그러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포기, 한포기 몸소 풀을 뽑으시며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 유희장관리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일터에 대한 애착,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량심이 있다면 이렇게 일할수 있는가, 설비갱신같은것은 몰라도 사람의 손이 있으면서 잡풀이야 왜 뽑지 못하는가고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뼈아픈 자책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유희장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 낡은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으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옳바른 인민관을 지니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전광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콜롬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씨리쎄나각하

나는 스리랑카독립 6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2월 4일　　평 양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정신을 심어주며

구장군 상구리당조직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데 힘을 넣고 회상기학습을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농사차비로 들끓는 어느 한 작업반의 현장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를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해설모임을 끝마치면서 그는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전례없는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로농통신원 조건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 강계시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가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자강도은행, 홍주닭공장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관계부문과 해당 단위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북방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체95(2006)년 2월 4일 강계시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목재가공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성, 인민성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줄수 있게 질좋은 가구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을 늘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훌륭히 건설된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생산공정의 무균화를 엄수하는 등 최상의 위생조건과 생산문화를 보장하며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은행 자강도지점(당시)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화를 실현함으로써 은행사업에서 전변이 이룩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홍주닭공장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이제는 강계시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히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를 본보기단위로 만들고 전국에 일반화하고있는것만큼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간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계목재가공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설비현대화가 다그쳐져 질좋은 가구를 비롯한 목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으며 무균, 무진, 멕스화가 실현된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효능높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이 생산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강도은행에서는 금융정보망을 구축하고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람들을 개발도입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있으며 홍주닭공장에서는 먹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고기와 알생산을 늘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만들어내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은행업무의 정보화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개선하며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에서 큰 은을 내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영광의 5월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학습열풍으로 전당이 들끓게 하자

사상사업작전과 옳은 방법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상사업작전이 좋고 방법론도 좋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학습열풍으로 전례없이 들끓게 하기 위한 사상사업작전을 세워제대로 세우고 옳은 방법론을 구현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룩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상사업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이곳 당위원회가 학습기풍을 세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자면 참신한 사상사업작전을 펼치는것이 필요했다.

이로부터 당위원회에서는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 작전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는것,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 모든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학습강사의 위치에서 학습지도를 광범하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런 작전밑에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되였을 때 당책임일군의 모범을 따라 일군들이 분발하고 온 련합기업소가 신년사원문학습열풍으로 끓어번지도록 한것,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6천1프레스직장과 산소분리기현대화공사장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에 달려나가 학습분위기를 고조시킨 사실, 조직부 일군들이 당생활지도를 위해 아래단위 당조직들에 내려갈 때마다 학습강사의 위치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실효를 거둔것 등 당위원회의 사상사업작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학습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방법론도 특색있다.

그 하나가 질문의 방법으로 대중을 분발시키는것이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알아야 질문도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군들부터 준비시켰다. 아는것이 적으면 특색한 질문도 제기할수 없고 옳고그른것도 판단할수 없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질문을 많이 하여 그들의 학습열의를 최대로 높여주도록 하였다.

일군들부터가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는 기풍을 세웠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인 리성권, 김원석, 안명수, 류철동무를 비롯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전직로작들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과학기술실력을 지니고 생산자들만 토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임을 집행하는 일군들이 참가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여 그들이 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분발하게 하였다. 말하자면 행정모임도 일군들이 많은것을 배우고 또 배우려는 의욕을 높여주는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이밖에도 당위원회에서는 문답식학습경연과 학습담화, 참관사업, 직관물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련합기업소안에 전례없던 학습열풍이 몰아치게 하고있다.

이런 치밀한 작전, 참신한 방법론은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정신력의 강자로, 배움에 대한 지향과 열의가 높은 실력의 강자로,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과감히 헤쳐나가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더욱 철지히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학습열풍은 참조의 열풍으로 이어져 수천t능력의 내화물생산풍정확립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강철직장에서 무연탄연소열에 의한 련속조괴중간남비가열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보산제철소, 강철준비직장, 주원료직장을 비롯한 전투장들에서 생산과 현대화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이 단위의 경험은 각급 당조직들이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학습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사상사업작전을 참신하게 하고 방법론있게 조직전개할 때 온 나라에 전례없는 창조와 비약의 폭풍을 몰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소금공업관리국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실력가와 밀거름

함경남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초급당위원회에서

함경남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이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문답식학습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학습에서 앞선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데는 비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또한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정무원들의 혁명파업수행과정이 곧 학습과정으로 되도록 옳은 방법론을 찾아 학습지도를 심화시켜 그들을 실력의 강자들로 키우고있다.

이곳 정무원들에게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그마한 수첩이 있다. 수첩에는 식료, 일용, 피복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기술적문제, 여러 분야의 상식 등이 알기 쉽게 적혀있다. 늘 품속에 간수하고다니며 필요한 자료를 발취해넣기도 하고 사업파정에 잘 모를 문제가 있을 때에는 꺼내보기도 하는 이 수첩은 정무원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그들의 혁명파업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초급당비서 김창상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이 수첩이 학습과 실천을 하나로 결합시키는데서 생활력이 나타나도록 그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왔다.

언제인가 주사업총화뒤끝에 국장이 한 일군에게 된장생산공정에 대하여 물어본적이 있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여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은 국장은 말하였다.

식료, 일용, 피복 이 세가지 부문 모두가 우리 관리국 일군들에게는 전공분야이다. 만약 동무가 어느 한 군의 지방산업 전반을 료해하고 대책을 세울데 대한 임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능실력가로 준비될 때만이 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그 일군을 만난 부비서 최경찬동무는 수첩을 보자고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식료공업부문의 자료는 부족하였다. 시간이 모자라 학습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그에게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학습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앞사람의 배낭뒤에 책장을 붙여놓고보면서 공부하고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끼니는 건늘지언정 학습을 중단하지 않은 투사들을 생각해보라.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하겠는가.

후날 그 일군이 열심히 학습하여 어느 분야나 막히는것이 없는 쟁쟁한 실력가로 자라났다는것은 두말할것이 없다.

초급당위원회는 관리국일군들과의 토의밑에 긴급한 집중지도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정무원들을 재무장시키는 학습을 말기하고 강하게 내밀었다. 학생료부생산추진문제가 긴급하게 제기될 때에는 피복기술 및 생산공정에 대한 집중강의를, 어린이양파류생산추진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식료품생산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문제에 대한 집중강의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정무원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참관이자 곧 학습이며 혁명파업수행과 학습을 하나로 밀착시키는데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초급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공장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삼일포룡산물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에 대한 참관이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 대한 참관후 목화를 통한 강의에 출연한 국장 윤성근동무는 백운산종합식료공장에 장냉이가공공정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제시해주고 토론과 론쟁을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 기사장 김철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서 좋은 방도들이 나왔다.

정무원들은 학습을 통하여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할뿐아니라 자기 사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묘술과 방법론도 찾고있다. 광명성제염소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문제,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식료공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 등 올해 판리국이 내세운 목표실현에서 돌파구가 열리고있다.

학습으로 시작되고 학습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것이 바로 혁명가의 삶이다. 정무원들속에서 학습열풍을 고조시켜 실력가들로 준비시키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시간이 문제가 아니였다

평양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학습은 시간이나 그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다.

얼마전 우리가 평양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도 바로 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학습도 구체적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장적인 학습반벌문답식학습이 진행된적이 있었다. 그때 초급당일군은 그 결과를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한것은 지난 시기 앞장섰던 단위가 뒤떨어졌기 때문이였다.

알아보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공무직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공장일은 물론 다른 일에도 자주 동원되는 조건에 맞게 학습조직을 잘 짜고들어야 할 대신 일부 일군들은 시간문제를 꺼들고있는것이였다.

학습에서 뒤떨어진 다른 단위 일군들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였다.

파업 시간이 문제이겠는가.

초급당일군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할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학습에 대한 관점문제였다.

문제를 이렇게 본 초급당일군은 뒤떨어진 단위의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때였다.

초급당일군은 이 제기를 잘 리용하였다.

로작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을 마치면서 시간을 아껴 학습을 깊이있게 꾸준히 해야 할 중요성을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는 초급당일군의 강의는 실효가 컸다.

공장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출퇴근용뻐스가 있다. 이 뻐스안에서의 학습열풍이 참으로 인상깊다.

어느날 저녁 초급당비서 김향희동무가 자기가 소속된 당세포비서를 찾아가 다음날 진행하는 예술소품공연에 출연하여 한편의 시를 읊겠다고 하였다. 당세포비서 김경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공장일을 하느라 제일 늦게 되근하는 초급당일군, 한가정의 주부인 그가 깊은 밤에 집에 들어가 해야 할 일도 많겠는데 언제 시간을 내어 시랑송준비를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것이다.

다음날 아침, 뻐스에 오른 초급당일군은 시집을 펼쳐들고 시랑송준비를 하였다.

드디여 공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예술소품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나 갈무렵 초급당일군이 무대에 올라 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읊었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는지 공연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일어설념을 못하였다.

그날 일터에서는 물론 퇴근뻐스안에서도 종업원들은 한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그후 출퇴근용뻐스안에서 일어난 시와 노래학습열풍은 당정책학습열풍으로 고조되였다. 늘 손에서 책을 놓을줄 모르는 종업원들의 대렬이 늘어나게 되였고 학습에서 뒤떨어졌던 단위의 종업원들은 문답식학습에서 모범이 되게 되였다.

학습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니 학습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였다. 그러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였다.

본사기자 장 철 범

학습열풍이자 생산열풍

곽산군종이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이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학습도 실속있게 되고 혁명과업수행도 성과적으로 보장됩니다.》

곽산군종이공장에 가면 최근년간 기술개건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는 종업원들의 긍지에 넘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비결을 우리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남다른 학습열풍에서 찾아보게 된다.

몇해전 초급당비서로 임명되여온 리철수동무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못한데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갓 입직한 로동자들은 물론 다년간 공장에서 일해온 로동자들도 자기 부문에 정통하지 못하고있었다. 오랜 기능공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기능을 다음세대에 이어주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있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공장의 기술개건사업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였다.

방도는 무엇인가.

초급당비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찾았다.

온 공장에 학습열풍을 일으키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곧 그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대중교양장소에 과학기술상식을 소개한 직관판을 제시하고 종이생산과 관련한 기술서적들을 구비해놓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배인, 생산부원, 설비부원을 비롯한 일군들이 강의준비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과 정치체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력배치도 합리적으로 짜고들게 하였다. 신입공들이 오랜 기능공들과 한교대에서 한기대를 다루면서 기술학습시간에 배운 내용, 책에서 배운 지식을 며칠후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에 자기 직장의 생산과 기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알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과 생산을 결합시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과 사람들을 해우쳐주기 위하여 학습정형료해방법을 달리하였다.

학습에서 모범인 대상과 학습을 게을리하는 대상을 한조로 하여 생산현장에서 학습정형을 료해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명백하였다.

그것은 종업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나이나 입직년한만으로는 자기의 지위를 옳게 차지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종업원들모두가 분발했다.

나날이 고조되는 학습열풍속에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현저히 높아졌고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이 련이어 생산에 도입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학습열풍이자 생산열풍이며 학습실적이자 생산실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산림복구전투는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다

산림토지보호관리에서 거둔 성과와 나타난 결함을 놓고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산림복구사업에서도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치신대로 양묘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불바람이 온 나라에 일어번지고 사회주의애국림운동, 모범산림군청호칭취득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올해에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모두가 비상한 애국열의에 넘쳐 나무모생산과 지름생산을 비롯한 준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산림복구전투는 후대들을 위하여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산림부문에서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복구전투를 한시도 중단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김정일애국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할 결심밑에 산림복구전투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당면하여 봄철나무심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산림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고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산림토지는 숲의 조성과 그 관리에 쓰이는 땅으로서 거기에는 산림이 조성되여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여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를 잘 보호관리하는것은 산림설계에 근거하여 산림을 정확히 조성하고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이며 농갱지를 비롯한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산림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림토지보호관리는 산림복구전투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의 하나이다.

송원군, 법동군, 정원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산림토지보호관리가 가지는 중요성과 산림토지가 노는 역할을 대중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산림토지보호관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법동군일군들은 주인답게 산을 잘 보호관리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산림토지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특히 지난 시기 자연적피해를 입은 산림토지를 복구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한치의 땅도 놀치지 않고 모든 산림토지를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줄기차게 벌리는 과정에 법동군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토지를 계속 확장해나가고있다. 온갖 새가 날아들고 많은 산짐승들이 보금자리를 튼 박토산의 산림토지는 당의 뜻을 받들어 수림화, 원림화에 떨쳐나선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애국심을 비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실은 김정일애국주의가 차넘치는 곳에서는 모든 산림토지가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된다는것을 실증하고있으며 그런 지역, 단위의 앞장에는 당정책을 절사관철해나가는 일군들이 서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면에 일부 지역, 단위들의 실태는 무엇보다도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김 정 은

왜 설비가동대수를 줄이였는가

재 령 광 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설비가동대수가 많아야 생산실적이 오른다. 이것은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하지만 재령광산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견해는 달랐다. 현시기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을 자기 단위 일처럼 대하고 그에 맞게 능동적으로 생산조직을 짜고들어도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현실적으로 광산에서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현저히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첫달 철광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이나 하는 우국지사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여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올해 첫 전투에 앞서 있은 일이다.

광산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첫달 철광석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가 토의되였다. 특별히 강조된것이 전기를 극력 적게 쓰는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는 문제였다.

지난해 광산에서는 긴장한 전력문제를 우에서 풀어주기 바라면서 주동적인 작전을 따라세우지 못하여 생산에서 애를 먹었다.

때문에 참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협의회에서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게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거나 바꾸며 전기를 쓰지 않는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자는 안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첫달 철광석생산계획을 완수하였는가.

광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대중을 전기절약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어느날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생산단위의 일군들을 채굴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새로운 생산조직표가 나붙은 가운데 참모부서의 한 일군이 여러가지 전기절약방안들에 대하여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실례를 들면 배수계통의 중간 골탕크를 확장한 다음 전력부하가 많이 걸리는 겨울철에는 아래단과 웃단배수계통중 하나를 대담하게 세우고 엇바꾸어 물을 퍼내면 보다 적은 전력이 소비된다.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광작업을 진행할수 있다. 중요생산단위들의 교차생산을 실정에 맞게 짜고드는 한편 대담하게 세워도 될 설비들은 세우고 꼭 필요한 때에만 집중적으로 돌려도 적지 않은 전기절약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

참가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구구를 해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설비가동률이 떨어져 생산에 지장이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중간골탕크를 리용하여 아래단과 웃단의 배수계통을 엇바꾸어 돌리면 능히 가능하였다. 그후 적은 전력으로 높아진 1월 철광석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밑에 광산에서는 절약예비를 찾아나갔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대중이 발동되니 좋은 안들이 더 많이 나왔다. 전기를 쓰는 굴착기의 가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낮에는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를, 밤시간에는 배수계통을 엇바꾸어 돌리며 세맥채굴을 위주로 하여 착정기와 착암기의 가동대수를 줄이는 방향에서 생산을 늘이자는 안이 제기되였다.

특히 승리광구와 금산광구의 광부들은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돌리는 로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위시간에 굴진실적을 부쩍 높이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사멸계통의 광부들은 월말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집중적인 생산을 진행할 목표밑에 스스로 더 많은 일감을 걸머지고 뒤고또 뒤였다. 보장단위들에서도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소재확보를 비롯한 작업준비를 미리 해놓았다가 짧은 시간에 와닥닥 풀내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옳은 조직사업은 응당한 성과를 낳기마련이다.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절약하려는 대중의 드높은 열의속에 채굴장에서는 철광석증산의 동음이 순간도 멈출줄 몰랐고 부속품생산도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되였다.

그럴수록 광산일군들은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아껴쓰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세분화하여 파고들었다. 여기서 중시된 문제는 전력소비 대 생산실적을 엄격히 총화하는것이였다.

광산에서는 전기절약을 위주로 한 실적평가의 정확성이 보장되도록 참모부서성원들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정된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교차생산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광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생산총화들에서 전기절약과 판련한 문제를 첫째가는 토의안건으로 제기하고 생산자대중의 승벽심을 더욱 높여주었다.

책임일군들은 물론 부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전력보장실태와 소비정형을 실시간 따져보며 기동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결과 설비들의 가동대수는 줄어들었지만 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배 정도로 오르게 되였다.

이렇게 하니 현행생산이 급하여 설비정비와 보수시간을 얻어내기 힘들던 문제가 절로 풀리였다. 지금 광산에서는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부득불 세워놓은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계획성있게 진행하고 필요한 부속품보장도 앞세우고있다.

광산의 총적인 생산방향은 명백하다. 현행생산과 동시에 지금 돌리지 못하는 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놓았다가 전력보장이 원만해지는 때부터 비약적인 생산성과를 거두어 당 제7차대회전으로 상반년도 철광석생산계획을 알당겨 완수하는것이다. 재령광산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목적지향성있는 생산조직과 구상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이들처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전기절약투쟁에 떨쳐나서면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수지애자에 비낀 참모습

평 양 시 송 배 전 부 에 서

오늘날 많은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운동파정에 이룩한 성과들이 현실에 널리 도입되여 나라에 주는 리익은 실로 적지 않다.

최근에 평양시송배전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덕을 보는 10kV차단기가동봉의 수지절연애자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튼튼한 바탕을 잃으켜야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평양시송배전부를 찾았을 때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에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전력설비운영과 전기절약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이곳 기술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는 주목할만 하였다.

그것이 바로 시안의 여러 전력계통들에 설치도입한 10kV차단기가동봉의 수지절연애자였다.

우리가 본 수지절연애자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수년간 진지한 탐구를 거듭한 과정에 실용적인 전력설비부속품으로 만들어낸 이 애자의 우월성은 대단하였다.

절연성이 좋은 이 애자는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절연이 잘되고 운영조건에서 기계적충격을 흡수하는 완충능력이 자기애자에 비해 훨씬 높다.

이 수지애자는 시내의 여러 배전망들에 설치된 때로부터 전력공급의 무사고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었다.

이 성과는 어떻게 이룩된것인가.

지난해까지 이곳 송배전부아래 여러 전력계통의 차단기가동봉은 자기로 된 애자로 되여있었다. 자기애자는 배전망계통에서 이상현상이 생길 때마다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충격때문에 자주 파손되여 중요단위들의 전력공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군 하였다. 보통 한해에 한개 변전소에서 평균 20개정도의 애자가 파손된다고 볼 때 이 계통에서만도 많은 전력이 손실되군 하였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다.

이곳 기술발전과와 공업시험실의 전문성, 문철림동무들은 자기애자를 성능이 좋은 수지애자로 교체하면 나라에 큰 리익을 줄수 있다는 애국의 마음안고 그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파학연구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재료분석방법과 형태를 합리적으로 제작할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수십차례의 시험을 거듭하며 성능높은 수지애자를 제작완성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송배전부일군들이 이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결과 종전의 자기애자에 비해 수명이 10배이상에 달하는 수지절연애자가 훌륭히 제작완성되였다.

지난해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우수한 정카를 받은 수지절연애자는 최근에 시안의 궤도전차운행과 상하수도부문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결된 전력계통들에 도입되여 크게 은을 내고있다.

지금 이들은 실천에서 검증된 우수한 수지절연애자를 시안의 모든 변전소들에 빠짐없이 도입하기 위해 창조적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애국의 자욕을 뚜렷이 새겨가는 이들의 노력이 더욱 훌륭한 결실을 맺을때 나라에는 또 얼마나 커다란 리익을 주게 될것인가.

본사기자 지 원 철

한g의 자원도 나라의 재부

삼 천 탄 광 에 서

막장은 지도에 새겨져있지 않다. 그속에서 일하는 탄부들의 모습도 쉽게 볼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캐내는 한kg 한kg의 석탄에는 얼마나 진한 땀방울과 애국의 숨결이 슴배여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몇해전 삼천탄광에서는 불담골에 새 탄맡을 개발하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분위기는 자못 심중하였다. 화제에 오른 불담골로 말하면 막장개발조건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기때문이였다. 여기에서 새 탄맡을 개발하려면 수백m의 굴진을 하여야 했다. 더우기 문제로 된것은 탄폭이 작은데다가 매장량 또한 많지 못한것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현존석탄생산도 긴장한데 설한 설비, 자재, 로력을 요구하는 새 탄맡개발을 뒤로 미루자고 하였다. 또 몇몇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석탄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아예 포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탄광책임일군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 탄맡을 개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자원을 대하는 자세와 립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일진대 오늘 우리가 힘이 든다고 그것을 버린다면 후대들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그후 탄광의 일군들은 탐사대원들과 함께 현지조사를 세밀히 진행하여 매장량과 위치를 확정하였다. 이어 굴진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일군들부터가 돌격대의 한 성원이 되여 부닥치는 난관을 헤치며 굴진전투의 앞장에 섰다. 이들의 신념을 검증이나 하려는듯 끊임없는 애로가 막아나섰다. 이들은 탄광의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 탄맡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때에는 함마와 정대로 굴진을 보장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버력을 등짐으로 져나르기도 하였다.

굴진이 시작되여 200여m 깊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발파소리에 뒤이어 탄부들의 흥분에 찬 목소리가 온 막장에 메아리쳤다. 가슴가득 석탄을 그러안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냈다는 긍지가 부풀듯이 차고넘쳤다.

불담골의 막장은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생겨나게 되였다.

이곳 막장에서 나오는 석탄량은 많지 않다. 허나 수백, 수천의 석탄보다 더 귀중히 여겨진다. 땅속에 묻혀버려 영영 빛을 보지 못할번 하였던 이 한줌한줌의 석탄에 이곳 탄부들의 진한 땀방울과 함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실려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불담골막장은 나라의 자원을 자신들의 피와 살처럼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고 이런 수천수만의 애국자부대가 있어 뜻깊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게 되리라는것을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자연에네르기리용에서 거둔 성과의 비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가보나 자연에네르기리용과 판련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같지 않고 실천적결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오늘날 자연에네르기리용을 위한 문제를 대하는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은 이래야 하는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의 사업이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를 절약하는것은 그것을 그만큼 더 생산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구내의 수십개소에 있는 조명장치마다에 태양빛전지판들을 일일이 설치하여 밤조명을 보장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전력공급체계는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한 태양에만 전기를 보장하게 되여있어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대상에는 공급할수 없었다.

그후 공장일군들은 태양빛전지판들의 설치방식을 종전의 분산형으로부터 집중형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우선 일군들은 30여개의 태양빛전지판들을 해비침률이 제일 좋은 위치에 설치하였다.

여기서 잘한것이 태양빛전지판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전력생산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한것이다.

또한 교차생산조직표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함으로써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공급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자연에네르기리용의 생활력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그 력을 똑똑히 본 공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태양빛전지판을 2배로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비생산부문에 한한 국가전력공급선을 대담하게 자르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시기상조라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배인 김명환동무의 립장은 단호했다.

《지금 나라에 전기가 남아들어가서 우리 공장의 생산공정들에 전력이 보장되고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생산부문의 전력보장만이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립장에 섰습니다.》

그날 일군들은 자연에네르기의 리용이 국가에서 보장되는 전력이 부족하면 하고 충분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심각히 깨닫게 되였다.

모든것을 면밀히 타산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진행해본 결과 에비는 얼마든지 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태양빛전지의 출력만 높이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대상에도 전기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과 피타는 노력으로 하여 태양빛전지판이 2배로 늘어났다. 이룬이 아니라 출력은 종전에 비해 거의 8배에 이르게 되였다. 전력생산이 늘어나고 대상이 많아진데 맞게 교차생산조직도 다시 짜고들었다.

전력생산이 늘어나니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과학기술보급실과 공장진열품들에 있는 수십대의 콤퓨터들에 전력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수영장, 문화회관 등 문화정서생활지점들에서도 자연에네르기의 덕을 보고있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수백명 어린이들의 식사보장도 이렇게 생산된 전기로 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처럼 어느 단위에서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여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가지고 이런 《발전소》를 하나씩만 세운다면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는 또 얼마만한 전진이 이룩될것인가.

글 및 사진 윤 금 찬

광 명 성 절 경 축

조 선 영 화 감 상 회 진 행

광명성절경축 조선영화감상회가 4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주조 어러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협동벌에 성실한 땀과 애꿎은 량심을 바쳐가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사상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한 조선예술영화 《벼꽃》을 감상하였다.

제6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진행

제6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이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봉사총국부문, 대외봉사부문, 성, 중앙기관부문,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급양봉사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연에는 49개 단체의 료리사, 접대원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매 단체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료리사들이 지정료리와 자체로 선정한 고기, 물고기료리를 제정된 시간내에 만들어 전시하고 그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는 과정에 련마해온 료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독특한 가공방법과 재치있고 숙련된 솜씨로 메기탕, 토끼고기보신탕, 도루메기졸임, 갑자정과, 비섯새우완자볶음, 푸초볶음 등 지정료리들과 자기 단위의 특색을 잘 살린 갖가지 료리들을 훌륭히 만들어 내놓았다.

점대원들은 빙수와 여러가지 산열매차를 비롯한 음료봉사기술을 보여주었다.

옥류관, 정양고려호텔, 대성지도국, 대동강구역종합식당,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료리사들이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먹는 음식감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함께 새로운 기술로 민족음식의 우수성과 해당 료리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4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남상업상, 관계부문 일군들, 급양봉사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경연참가자들은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며 봉사활동에서 이룩한 좋은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음식문화를 활짝 꽃피우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불별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간다.
—은하지도국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공화국영웅과 직맹일군들, 직맹원들의 상 봉 모 임 진 행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과 직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의 상봉모임이 4일 선교련직공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영웅 지영춘이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 혁명무력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세기와 세대를 이어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여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인민군대가 걸어온 피어린 투쟁의 길, 영광넘친 승리의 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속에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해방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부시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문경고개, 사명산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증기사수로 싸우면서 수백명의 적들을 살상로로하는 혁혁한 전과를 세운데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천하무적의 최정예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혁명무력강화를 위한 불멸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주체적군건설위업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어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가르쳐주시고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 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상봉모임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로씨야 싸할린주에서 개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1월 28일 로씨야 싸할린주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혁명전통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싸할린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싸할린주정부 문화상은 조선의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싸할린주민들은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다. 전시된 사진들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심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람회는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싸할린주미술박물관 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를 펼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건설되고있는 조선의 속도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설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 선 모 임 마 련

주체105(2016)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는 4일 주조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알렉싼드르 마메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궁석웅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궁석웅부상은 올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고 조로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신 15돐과 씨비리 및 원동지역을 방문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2016년에도 친선과 선린의 좋은 전통이 이어지며 쌍무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호혜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알렉싼드르 마메고라특명전권대사는 로조친선의 해인 지난해 두 나라사이에 많은 고위급래왕과 큰 규모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난관도 함께 극복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귀국

무대위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이 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가 전송하였다.

방문기간 무대위특별대표와 일행은 리수용외무상을 의례방문하고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였다.

회담과 회담에서는 조중쌍무관계와 지역정세를 포함하여 공통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숙천청년과수농장에서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과일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농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경쟁열풍을 일으켜 담편한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요강을 발표한데 이어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담편한 과일나무비배관리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송덕지구 제3작업반, 운정지구 제3작업반, 검산지구 제4작업반이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앞서나가고있다.

이 작업반들에서는 초급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일자리를 뚝뚝 내며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수백명 어린이들의 식사보장도 이렇게 생산된 전기로 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처럼 어느 단위에서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여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가지고 이런 《발전소》를 하나씩만 세운다면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는 또 얼마만한 전진이 이룩될것인가.

글 및 사진 윤 금 찬

신념과 실력으로 당을 받든 실천가형의 일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지배인이였던 로력영웅 공승일동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한생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기를 원한다. 생은 비록 끝났어도 아름다운 추억과 깊은 여운으로 오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의 갈피갈피에는 인생의 교본으로 되는 소중한것이 있다.

흥남의 로동계급이 오늘도 우리 지배인이라고 정담아 부르며 추억하는 공승일동무는 대화학공업기지와 더불어 지울수 없는 생의 흔적을 남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 높이, 충실성의 높이이자 실력의 높이이며 실적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자로 사회생활의 첫 자욱을 뗀 그는 작업반장과 생산과 지도원(당시), 계획지령장을 거쳐 기사장, 지배인으로 성장한 일군이다. 그가 지배인으로 사업한 지난 10여년간 련합기업소는 눈부신 전변을 안아왔고 무려 10여차례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행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승일동무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가 행운을 하고난 사람이기 전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신념과 실력으로 받들줄 아는 실천가형의 일군이였다고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나는 흥남지배인이다

공승일동무가 지배인으로 사업한 기간은 련합기업소가 최악의 형편으로부터 비약의 직선주로에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다.

나라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구복하자면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야 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봉쇄책동으로 기업소의 전망은 갈수록 어둠기만 하던 때였다. 이미 있던 무연탄 가스화생산공정이 습죽었고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낡은 방식의 물전해공정도 긴장한 나라의 전력사정으로 원만히 가동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공승일동무는 40대의 나이에 온 나라가 지켜보는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중책을 맡게 되였다.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후 그는 자주 기업소정문가까이에 있는 대형글발앞에 서있군 하였다.

《흥남아 일어나라 백두산이 본다 전진이 너를 따르리! 항일만이 살길》

이 글발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1930년대 중엽 신흥지구에 남기신 구호문헌이였다.

공승일동무는 그 글발을 오늘도 어머님께서 흥남의 로동계급에게 하시는 탕부로 새겨안았다.

《흥남아 일어나라 백두산이 본다》, 얼마나 좋은 글발입니까. 난 저앞에 설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내고 일떠설수 있다는 신심을 가다듬군 합니다.》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과 조용히 마주앉았을 때에도, 현장의 로동자들속에 있을 때나 심중한 기술적문제를 론의하는 협의회때에도 지배인은 자주 이 말을 외우군 하였다고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켜보시고 조국이 기대를 안고 흥남의 비료산을 기다린다는 자각을 늘 가슴에 새기고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기업소의 전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뚜렷한 공적을 남길수 있었다.

지배인으로 임명된 후 그가 처음으로 착수한 일이 바로 새로운 물전해공정에 의한 비료생산체제를 확립하는것이였다. 시험연구단계에서 폭발이 일어나 미루어놓았던 새로운 물전해공정을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성해야 한다는 지배인의 주장을 처음에는 찬성한 사람보다 반대한 사람이 더 많았다.

세계적으로 불과 몇개 나라만 만들어낸다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도전 한장 없이 자체로 설계하고 제작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시 폭발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으니 심사숙고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인것만큼 우에 제기하여 외국에서 일식으로 사들여오는 길을 택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지배인의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 길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제힘으로 보란듯이 일어설수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망에 통구멍을 낼수 있다는 지배인의 완강한 주장에 일군들이 따라섰고 기술자들이 호응해나섰다.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94(2005)년 몸소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새로운 물전해공정과 관련한 지배인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절리고있는 문제까지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지배인의 심장은 더욱 키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통이 크게 일관을 전개해나갔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담한 착상을 펼쳐주고 진지한 협의를 거듭하면서 막대한 전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이 높고 부지면적을 1/7로 줄일수 있는 새로운 물전해공정 설계안을 완성하고 개건공사를 즐기차게 내밀었다.

1년후 다시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생산을 시작한 새로운 물전해공정과 한창 제작, 조립되고있는 설비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10년전인 그때에 벌써 공승일동무는 자신있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흥남이 살았다고, 머지않아 흥남에서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지게 될것이라고.

그의 말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한해에도 두차례, 세차례씩 찾으시여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절음절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흥남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폈고 그때로부터 꼭 5년후에는 우리 식의 갈탄가스화에 단번성공하여 주체비료생산의 동음을 안아찼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에 이끌려 실력으로 당정책을 받들라

로력영웅이며 련합기업소의 오랜 연공인 리명규동무는 우리에게 10여년전 기사장시절의 공승일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기업소에서는 전설한지 수십년이 된 질안립상화탑을 들어내고 새로 세우기 위한 공사를 벌려놓았었다.

높이가 무려 수십m나 되고 무게가 수백t이나 나가는 거대한 강철구조물을 지상확대식으로 조립하여 통째로 일떠세워야 하였으나 당시 기업소에는 10t 능력의 권양기들밖에 없었다.

연공들과 기술자들은 집체적 지혜를 합친 끝에 낡은 립상화탑에 의지하여 10여대의 권양기들로 새로운 집안립상화탑을 일떠세울 방안을 내놓았다.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건설한지 오래되고 부식되여 군데군데 콩크리트가 떨어져나가고 철근이 드러나보이는데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립상화탑에 의지한다는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일단 들어올리다 실패하는 날에는 온 기업소가 내부에비를 짱그리 동원하여 제작한 탑이 박산나고 인명피해까지 있을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였다.

이때 연공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해나선것이 당시 기사장이였던 공승일동무였다.

자신이 심중히 다시 검토하고 계산한 수치들을 내놓으며 그는 확신성있게 말했다.

《능히 성공할수 있습니다. 이전 파학입니다.》

이렇게 되여 온 련합기업소가 지켜보는 가운데 립상화탑을 일떠세우기 위한 긴장한 작업이 벌어졌다.

낡은 립상화탑의 허리에 감아놓은 쇠바줄들과 활차들, 권양기들의 상태를 다시금 꼼꼼히 확인하고 권양기시동신호를 보내기 위해 입에 호각을 가져가던 리명규동무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굳어졌다.

낡은 립상화탑꼭대기에 비티고 서있는 사람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공승일동무였다. 한달음에 립상화탑우로 뛰여올라간 그는 정시의 자기를 잃고 버럭 소리쳤다.

《정신이 있소? 당장 내려가시오.》

기사장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긴 내가 설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안되오.》

《이 기사장이 여기에 있으면 공승일동무도 절음절음 성장의 큰 보폭을 내짚었고 신념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강자로 자라났다.

공승일동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인이 보기 드문 락관주의자였다고 정하고있다.

대화학룡업기지의 지배인인 그는 하루에도 생산정상회와 판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수십가지나 절론하고 최리하여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하여야 하였다. 한마디로 눌 드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였지만 사람들을 대할때의 그의 인상은 언제나 밝았다.

60을 가까이한 나이에도 축구경기가 벌어지면 문지기로 출전하는 그를 보며 로동자들은 마냥 기뻐했고 예술소품공연무대에서 부르는 지배인의 청높은 노래를 무척 기다렸다.

현대화공사장에서 작업의 설창에도 부르고 문화회관무대에서도 불렀으며 명절날 단란한 가정에서 자식들과 함께 즐겨부르군 한 그의 지정곡은 노래 《사랑의 봄빛》이였다.

지난 주체100(201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연회석상에서 장군님의 축배잔을 받아안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지닌 그가 충정의 맹세를 담아 부른 노래도 이 노래였다.

…

찬서리 밟으며 먼길을 갈 때도
가슴에 안고가는 사랑의 봄빛
아—은혜론 장군님의 품에서
희망의 봄은 왔네

진정 이 노래는 신념으로 당을 받들어온 그의 한생의 주제가였다.

…

이윽고 호각소리가 길게 울리자 권양기들이 용을 쓰기 시작했고 낡은 립상화탑에 감긴 쇠바줄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조여들었다.

우지직우지직 하고 낡은 립상화탑의 콩크리트가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귀청을 긁는 속에 거대한 강철구조물이 옴씰옴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모여선 수천명의 사람들이 심장을 조이며 시시히 일어서는 강철구조물과 낡은 립상화탑우에 서있는 기사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초 또 한초, 누구도 흐르는 시간을 잡촉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새로운 립상화탑이 제자리에 우뚝 서자 사람들은 시로 부둥켜안고 만세의 환호성을 터쳤다. 한참후 사람들이 낡은 립상화탑우의 기사장을 찾아보았으나 그는 벌써 거기에 없었다.

공승일동무는 한쪽켠에 홀로서서 흐뭇한 얼굴로 새로운 립상화탑을 바라보고있었다.

울먹이며 다가선 리명규동무에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새 립상화탑이 정말 멋쟁이지요?》

때는 11월이였다. 모자를 벗은 그의 머리에서는 더운 김이 물을 서려올랐고 온몸은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오늘도 그 립상화탑동체에는 흥남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를 담은 거대한 글발이 나붙어 깊은 밤중에도 빛을 뿌리고있다.

《결사옹위》,

많은 사람들이 그 글발을 보면서도 지배인을 추억한다고 한다.

《누구나 우리 지배인은 배짱가였다고 하지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실력이지요.》

그들만이 한 말이 아니였다. 로동자시절부터 공승일동무를 알고있다는 연구소 소장이며 부지배인, 직장장들과 기술발전과장도 그는 배짱가이기 전에 실력가였다고 이야기했다.

공승일동무가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 련합기업소에서는 큼직큼직한 현대화공사들이 참으로 많이 진행되였다.

웅근 하나의 거대한 화학공장 건설과 맞먹는 가스화대상공사만 보더라도 매 설비와 공정별에 따르는 설계도면을 무져놓으면 웬간한 방을 채울수 있다고 한다.

매 설계도면마다에 지배인의 수표가 있다.

원래는 도면에 지배인이 마지막으로 수표를 하게 되여있으나 지배인의 수표가 맨 처음으로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건한건의 설계도면이 심중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안고있었고 국가적인 중요대상공사인것만큼 단 한점의 오유라도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웠다. 그런데로부터 새로운 기술방안을 기안한 기술자들이나 설계도면을 완성한 설계가들도 주저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럴 때면 공승일동무는 자신이 직접 그 도면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지배인수표란에 자기 이름을 큼직하게 써넣군 하였다. 그만큼 그는 다방면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가지고있었고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주견도 강했다.

새로 일떠서는 가스화공정에 세계적인 발전추세로 되고있는 압력변환흡착법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론의가 벌어졌을 때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속에는 이 방법에 대한 파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거의나 없었다. 파악있는 종전의 방법대로 설계를 완성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협의회참가자들앞에서 종전의 방법에 비한 압력변환흡착법의 우월성을 파학리론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난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책임은 운영을 맡은 련합기업소 지배인인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새로운 가스화공정에 도입된 압력변환흡착법은 운영과정에 그 우월성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가스화공사가 끝난 후 공승일동무는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가 남긴 생의 메아리

흥남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진 지배인에 대한 표상은 늘 작업복차림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였다. 공승일동무는 련합기업소 지배인으로 10여년간 일하였으나 출퇴근할 때에도, 한나절씩이나 들어앉아 다 들아볼수 있는 기업소의 드넓은 구내에서도 차를 타고다닌적이 거의 없었다.

기업소사람들 누구나가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의 지배인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찾아와 스스럼없이 미주앉는 모습에 습관되였고 로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후문으로 함께 출퇴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범상한 일로 여기였다. 틈이 없고 친절한 지배인을 찾아 때없이 로동자들이 사무실과 집문을 두드리군 하였으나 항상 그는 밝은 얼굴로 그들과 마주앉군 하였다.

하기에 그는 그 어느 일군보다 기업소의 실정을 손금보듯이 알고있었다.

오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이름이 그의 수첩에 빠짐없이 올라있었고 직장들에 내려갈 때마다 그들의 건강과 가정형편부터 알아보는것이 버릇처럼 굳어졌다.

가정에서 땔감이나 식량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제집의 식량과 땔감부터 덜어내온 그였다.

공승일동무의 안해 박성순동무는 집에 있는 식량이나 땔감을 내갈 때마다 남편이 지배인구실을 못하여 맡는 책벌로 여기라고 말하군 했다며 한해 겨울을 나자면 몇차례나 땔감을 다시 장만해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 걸어서 25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는 지배인의 집은 60여㎡정도 되는 단층집이다. 기사장으로 임명되여 받은 이 크지 않은 집에서 그는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두 자식을 키웠다.

지배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도 있었으나 그는 로동자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런 불편도 없다며 끝내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고 그 집에서 근 20년을 살아왔다. 가정방문을 갔던 로동자, 기술자들의 집에 비가 새거나 구들에 불이 잘 들지 않으면 즉시에 수리대책을 세워주었지만 자기 집수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그였다. 색다른 카구나 물건을 찾아볼수 없는 그의 집에서 남다른것이 있다면 세 벽면을 빽 채운 기념사진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그의 가정에 유일한 카보로 남아있다.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그렇듯 인정이 헤프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많이 쓴 그였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특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언제인가 문화회관에 나갔던 지배인은 부부2중창으로 온 나리에 소문난 너성로동자가 왔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자리에서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지배인에게 우리야 기업소에서 큰일을 제끼는 인재들도 아닌데 이렇게 왼심을 쓰는가고 하자 공승일동무는 지배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있어도 우리 기업소의 자랑이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동무들이야말로 그 누구도 대신 못할 보배들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고 한다.

공승일동무에게는 발표하지 못한 박사학위론문이 있다.

어려해전부터 틈틈이 준비한 그 론문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이 빨리 발표하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후에 시간을 내보자고 미루군 하였다. 이런 그였지만 기업소의 기술자들이 론문을 준비하는데는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고 완성되면 제일처럼 기뻐하며 론문을 발표하도록 떠밀어보내군 하였다. 그가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기간 기업소에서 20여명의 학위소유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다.

한생 열정에 넘쳐 불같이 살아온 그였기에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것도 미처 손쓸새 없는 단계에 이른 때였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가족들은 그가 눈을 감는 날까지 자신의 생이 끝난다는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양의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내려와 집에서 안정치료를 할 때에도 그는 하루 한번은 꼭 기업소로 나가군 하였다. 처음에는 걷는 내색을 하지 않느라고 걸어서 나갔고 걷기가 불편해진 후에는 차를 타고서라도 기업소를 돌아보고야 마음을 놓군 하였다.

이제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수 있다고 락관하며 집에 누워서도 전화통을 안고 생산을 지휘하고 새해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그를 의사인 안해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앓는 병이 모진 동통을 동반하는 병이였으나 언제 한번 내색하지 않아 불파 몇사람만이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병문안을 온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인 김승일동무는 불치의 병으로 앓고있는 몸이면서도 우리 흥남의 로동자들이 리용할것이기에 제일 훌륭해야 한다며 최상급의 리발의자들과 비품들을 마련해오면 지배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생을 당의 뜻대로 산 일군이였습니다.》

그는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신념과 실력으로 당을 받들었고 한생을 당의 뜻대로 산 공승일동무는 흥남땅에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 비료증산의 동음과 더불어 흥남로동계급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진 수
본사기자 리 철 옥
특파기자 박 동 석

우리 힘과 기술로 의료봉사사업에서 전환을

현대적설비의 정상가동에 비낀 애국의 열정

의 학 과 학 원 에 서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는 몇해전 60만배전자현미경을 조종하는 프로그람이 파괴되여 연구사업에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60만배전자현미경을 떠나서는 최첨단의학과학기술의 발전을 생각할수 없음을 잘 알고있는 의학과학원의 일군들은 즉시 어느 한 단위 연구사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졌다. 하지만 한해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렸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초기부터 우리의 기술로써는 60만배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을 보장할수 없다고 주장하던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사실 파괴된 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을 위한 조종프로그람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다는것은 해당 나라 제작회사에는 불가능한것으로 공인되여있었다. 이렇고도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는것은 물론 개발비용도 엄청나게 들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보수를 지불하고 기술봉사를 받고있었다. 하지만 민족적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자체의 힘으로 조종프로그람을 되살리는가 아니면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가 하는 두가지 방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그때 의학과학원 일군의 방으로 최장김동철동무가 들이섰다.

전날밤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의 새 세대 연구사들을 찾아가 대책을 토론해보았다고 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60만배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을 실현할 결의를 피력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군의 마음은 무등 기뻤다.

그러나 그는 정색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그러다 또 시간랑비나 하지 않을가? 이전 심중한 문제요. 지금 우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첨단수준의 약들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중대한 책임을 안고있소.》

《그렇기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내지는것입니다. 후날 다시 조종프로그람이 파괴되면 그때도 해당 나라에 찾아가겠습니까.》

그후 의학과학원과 전자공업성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60만배전자현미경을 정상가동시키기 위한 힘겨운 전투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의학과학원의 일군들은 아직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그 어떤 문헌에도 이에 대해 서술되여있는것이 없었지만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연구사들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해결해주었다.

일군들인 박순필, 장혜남동무들과 리상렬동무를 비롯한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의 종업원들도 깊은 밤, 이른아침 때없이 현지에 찾아가 연구사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당의 품속에서 떼우며 자란 30대의 지식인들인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의 연구사 허창일, 김영민동무들은 몇달동안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안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나날 너무 지쳐 쓰러질때도 있었지만 이들은 단 하루도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전자공업성 정보기술개발사 탕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사 김광철동무도 최첨단의학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60만배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전자현미경의 가동을 위한 콤퓨터조종체계를 해석한데 이어 100여차례의 실패끝에 자료복원방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확립함으로써 더는 살릴 방도가 없다던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조종프로그람을 되살려 지난해 9월부터 60만배전자현미경을 정상가동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의학과학원의 일군들앞에서 연구사들은 눈굽을 적시며 말했다.

《성공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60만배전자현미경의 조종프로그람따위는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

이번 연구과정에 새로운 학술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자기의 힘과 기술을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확신을 다시금 체득했다는 새 세대 연구사들의 말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였다.

60만배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으로 앞으로 각종 나노약물들의 질을 훨씬 개선할수 있을뿐아니라 새로운 나노약물들을 적극 개발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고, 의학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정보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는 이곳 연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비록 힘은 들어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의 과학기술의 위력은 더욱 백배해지고 우리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라고.

본사기자 방 경 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최근 황북종합대학 강건의학대학 사리원시제1인민병원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받아들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시기 병원에서는 물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술후 해당 부위를 부목이나 석고붕대로 고정시키였다. 이 방법은 회복기일이 오래고 관절강직이 오는것과 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이로부터 이곳 의료일군들은 상급병원 의료집단과의 련계밑에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복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앞선 치료방법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이였다.

하지만 애로도 없지 않았다. 한것은 치료에 쓰이는 재료가 불수강인것으로 하여 원가가 많이 드는것은 물론 정밀가공이 쉽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결정적으로 병원의 실정에 맞는 치료방법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병원자체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급병원들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모든 부문이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비약하는 시대의 숨결은 이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병원의 실정에 맞는 치료방법을 자체의 힘으로 림상실천에 받아들일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파장 김창호동무를 비롯한 사지외과의 의료일군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문헌자료들을 연구하며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가던 이들은 드디여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그것은 작은 금속못 몇개를 가지고도 진행할수 있는 수술방법이였다. 그러나 림상실천에 도입하자면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의료일군들은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수술을 진행할 때의 합리적인 각도에 대한 힘의 모멘트를 정확히 계산해냈고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갔다. 이 과정에 이들은 골골새 자체의 실정에 맞는 치료방법을 확립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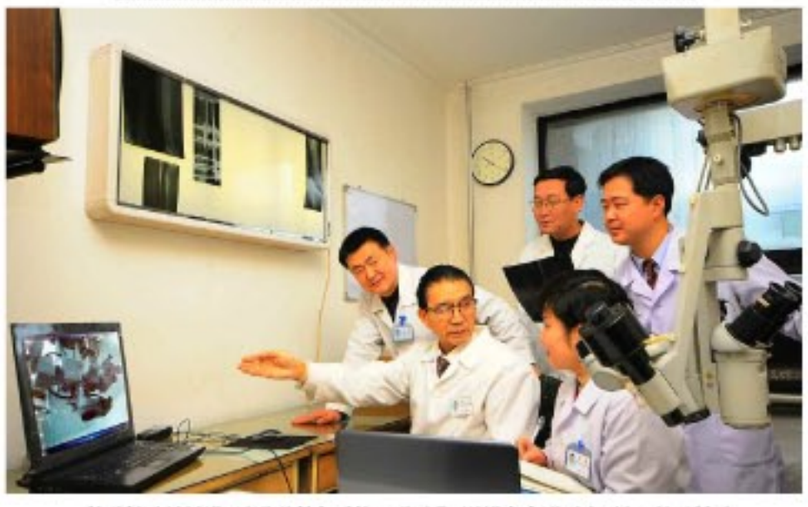
성과는 컸다. 수술후 부목고정이나 석고붕대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였고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복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었으며 원가가 얼마 들지 않는것으로 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도입할수 있었다. 보다 큰 성과는 과의 의료일군들속에 자기 힘을 믿는 정신이 굳게 자리잡게 된것이였다.

만일 상급단위만 쳐다보며 자체의 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병원에서는 이들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를 일반화함으로써 다른 과들에서도 자체의 힘과 지혜로 의료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누구나 자강력을 다지는 길이 보든 성과의 탐보라는것을 가슴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물론 이들이 거둔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더 높은 령마루에로 비약하려는 열의와 신심이 만장약되여있다. 이것은 앞으로 자강력을 다지는 길에서 성과를 안아올 정신력의 총폭발이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주 령 봉



환자치료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로운 미세수술방법을 연구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태양의 빛발따라 통일을 마중가는 겨레의 환희

백두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는 위대한 태양민족의 력사에 또 한돌기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기며 이해의 하루하루가 격동속에 흘러가고있다.

축복받은 조국의 대지우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 인민의 기쁨 활짝 꽃피여나고 드높은 신심은 천지를 뒤흔들고있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나라, 창공에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가 무궁토록 휘날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누구나 부푸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외세의 지배와 반역통치배들의 악정으로 치욕과 굴종을 강요당하고 삶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몸부림치는 남녘겨레들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희망, 외세와 매국노가 없는 통일된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참된 삶을 마음껏 꽃피우고싶은 소원을 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꽃피어나는 우리 공화국을 바라보고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굶고있는 그 칸절한 소원을 풀어주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로 달리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겨레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원수님의 안녕은 우리 겨레의 최상의 기쁨이고 최대의 소원입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여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민족자주통일과 강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기약되여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원수님께 맡겨있습니다.》

원한의 철근콩크리트장벽을 넘어 정양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오는 남녘겨레의 절절한 흠모의 목소리, 그것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해 애국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남녘겨레의 뜨거운 진정의 토로이다.

암흑과 절망으로 숨막히는 세상에서 남녘겨레들이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순결한 량심의 언어로 삼가 드리는 흠모의 인사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며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의 운명을 모질게 위협하던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가셔주신 위대한 수호자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표시이다. 지금 남녘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이 침략자들에게는 무지비한 철추로 되지만 자기들에게는 전쟁의 위험을 막아주고 삶을 지켜주는 애국의 방패로 된다고 주저없이 말하고있다. 천백번 지당한 말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장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고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다고 해도 희고석에 몰려 한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것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감권과 전횡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정화와 통일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발걸음의 기상을 목격하며 남녘인민들은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안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원쑤들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제아무리 기승을 부리여도 신심드높이 날에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예지, 에리한 분석력과 판단력, 단호한 결심과 대담한 실천, 언제나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 적아간의 치렬한 정치, 외교, 군사적대결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만을 이룩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림기응변의 지략은 남녘겨레들의 한없는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들은 이북은 막강한 군력이 있고 단결력이 강하기에 국제무대에서 할 소리를 다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제국주의우두머리와 당당히 맞서 조선민족의 용맹과 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가고있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진리를 남녘겨레들은 가슴후련하게 새겨안고있다.

뛰여난 령도적자질과 위인적풍모, 바다같은 사랑과 한없는 인덕,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 민족의 절대한 령도자이심을 확신한 남녘겨레들이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온 누리에 떨쳐지는데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받아안은 그들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권리와 삶을 누릴 의지를 안고 투쟁의 길에 파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나오는 어느 한 투쟁현장에서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해쳤다.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빼앗긴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더이상 감수할수 없다. 시대와 외세의존의 썩은 정치를 뿌리뽑고 저 이북과 같은 자주정치의 새세상을 안아와야 한다. 자기자신의 존엄과 권리는 바로 이북민중처럼 자기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며 무적의 군력으로 반미대결전의 희호승리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남녘겨레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한없는 격정에 휩싸여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해내외 온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도 흔들수도 없다.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 그것은 바로 선군의 길을 끝없이 걸고걸으시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빛내여주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끝없는 메혹과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다.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과 파쇼폭압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운명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남녘인심의 도도한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백두산에서 밝아오는 자주통일의 려명은 머지않아 온 삼천리강토를 밝게 비칠것이다.

남이 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겨레의 리얼이 맑고 깨끗한 흠모심은 이해의 조국통일운동을 더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원천으로 될것이며 그에 떠밀려 6.15통일시대의 격류는 다시금 노도치며 태양민족이 하나가 되는 희희의 날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총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자

총련 본부위원장회의 진행

총련 본부위원장회의가 1월 29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 본부위원장들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허종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기 위하여서는 총련 본부위원장들이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전조직을 일대 진격전에로 총궐기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인 올해투쟁을 벌리는데서 본부위원장들이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에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조국은 세계를 놀래우는 창조와 기적으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모습을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조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총련 본부위원장들이 조국인민들과 투쟁보조를 맞추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깊이 새기고 무조건 관철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혁명이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선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책임일군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부위원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우리앞에 가로놓인 어떤 난국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반석같이 다지며 지역직지도단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본부위원장들이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총련 본부위원장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에서 제시된 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사업실적으로 맞이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아르헨띠나공산당이 최근 인터네트국제뉴스통신 《데 또다스 빠르떼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해주신것은 조선통일위업실현에서 획기할 사상리론적 공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분렬사상 최초로 두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시였다. 이로써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선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그 지위와 성격이 확고히 증명되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된 후 북과 남의 온 민족이 어깨겯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온 격동적인 사변들은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자리잡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무궁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야만적인 범죄력사는 영원히 지워질수 없다

남조선 각계가 항의투쟁 전개

일본수상이 직접 사죄할것을 요구

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남조선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인 리옥선, 강일출 녀성이 1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파렴치한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갖은 수치와 고통을 당한데 대해 증언하였다. 그들은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단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 일본당국이 피해자들을 제쳐놓은 상태에서 돈 몇푼을 내들며 성노예문제를 《합의》하였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의 소녀상을 누구도 철거시킬수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소녀상을 없애려 하느냐고 분노를 터뜨렸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고 일본수상이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며 법적배상에 나서는것이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이번 《합의》는 인정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의 소녀상설치 추진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파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일본당국에 대한 항의투쟁의 일환으로 정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미레세대 가세우는 정화의 소녀상추진위원회는 일본의 력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8월 15일까지 부산에 있는 일본명사관앞에 제2의 정화의 소녀상을 설치할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첫 정화의 소녀상은 3월 1일을 계기로 한 공원에 설치된다고 한다.

일본이 파거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그 무슨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을 운운하고있지만 조선민족에게 끼친 일제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굴욕《합의》가 무효화될 때까지 싸우자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린 남조선당국의 굴욕행위를 반대하는 남조선각계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38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1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또한 《한일협상규탄 대학생대책위원회》의 주최하에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소녀상앞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일본에 굴종하여 성노예피해자들을 또다시 모독하고 짓밟았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합의》의 전면무효를 선언한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합의》를 거부하며 민중의 힘으로 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굴욕《합의》가 무효화될 때까지 싸우자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내에서 치욕스러운 당국의 굴종행위를 규탄하며 성노예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이 진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굴욕적인 《합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제2의 정화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발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또 한돌기의 년륜을 새긴것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호전광들은 겨레의 드높은 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 괴뢰합동참모본부는 작전지휘관회상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도발》과 《단호한 응징》에 대해 떠들며 각급 부대들에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라.》는 지령을 떨구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도처에서는 각종 전쟁연습소동들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

괴뢰해군은 지난 1월 15일 충청남도앞바다에서 《북방한계선수호》의 간판밑에 전술기동, 해상실탄사격, 대잠록의투하훈련을 벌려놓았다.

괴뢰육군은 1월 18일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도하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에 의하면 《K-2》흑표탱크를 비롯하여 30여대의 상갑기재들이 공격용지승기들의 엄호하에 도하작전을 벌리며 총포탄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괴뢰육군 제35사단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동시다발적인 헤로》와 《적의 해안침투상황》 등을 가상한 후한기훈련을 강행했다.

엄중한것은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이 뗀 앞장에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다.

해군참모총장이라는자가 1함대사령부에 쿄를 들이밀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수장》시키라는 호전적폭언을 쏴쳐댈 때 특수전사령부의 사령관과 수십명의 참모부성원전원이 직승기에서 락하산을 타고 떠여내리는 전례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의장 리순진역도의 호전성은 누구도 따를수 없다. 새해벽두부터 백령도와 교동도를 비롯한 최전방일대를 주린 개처럼 싸다니며 돌개들을 다그어댄 이자는 며칠전에도 《군사대비태세점검》을 코에 걸고 괴뢰특군2작전사령부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행각하면서 《도발의 련쇄고리를 끊어야 한다.》느니, 《도발원점파 지휘, 지원세력을 강력하게 응징》할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군과 미제침략군과의 련합훈련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남조선해병대는 미해병대와 함께 《련합작전수행능력배양》을 노린 《련합실탄지휘훈련》을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장진호반전투를 실례로 들면서 《혹한환경극복이 선행조건》이라고 뇌까렸다. 그 무슨 《격려》의 구실밑에 훈련장에 기어든 괴뢰해병대사령관이라는자는 《공세적기질》이니 뭐니 하고 제놈에 겨운 나발을 불어대면서 잔뜩 피대를 돋구었다. 내외호전광들은 《침투와 타격》을 배합한 이번 훈련을 통해 정찰 및 감시, 첩보보고와 화력유도능력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상만이 아니다. 남조선의 하늘도 북침전쟁연습의 폭음으로 짝 들어차고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조선에서는 괴뢰공군과 미공군의 련합훈련인 《쌍매훈련》이 감행되였다.

괴뢰군의 《KF-16》전투기와 미공군의 《F-16CM》전투기들이 동원된 이 연습에서 호전광들은 최신항공무기체계정보와 전술을 공유하는 련합전술토의, 항공지원, 공대공전투훈련 등을 벌리면서 극도의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러한 속에 3월에 실시될 예정인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 《북의 핵도미싸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4D작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될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악명높은 최신핵타격수단들과 남조선과 미국의 방대한 침략군병력이 투입되는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이 《4D작전계획》에 따라 감행된다면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군사적도발소동이야말로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군부깡패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다.

조성된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희성물은 핵전쟁광신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다.

외세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북남관계를 파괴하면서 북침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역적무리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가도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해내외의 우리 겨레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현에 악을 쓰며 매달리는 호전광무리를 우리 겨레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헤덤비는 어리석은 역적들에게 차례질것은 종국적멸망밖에 없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무엇을 노린 핵폭발동영상공개놀음인가

얼마전 미국방성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폭발하는 경우를 가상한 모의시험동영상을 공개하였다.

그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500m상공에서 1개의 히로시마급원자탄이 폭발하는데 폭발지점에서 반경 1.5km안에 있는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1.8km구역안의 대부분이 불에 타 녹아내린다. 서울시청, 광화문 등 중심지역의 건물들이 절반이상 파괴된다. 125만명이 죽는다. 그중 40만명은 폭발시에 즉사하고 나머지는 그후 화상과 오염 등으로 사망한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경악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는 협악한 사태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후 남조선에서는 핵공포증이 만연되고있다고 한다. 십분 그럴만하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가 남조선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한데 기초하여 핵폭발모의시험을 진행하고 그 동영상을 내돌렸다는것이다.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물론 우리가 강위력한 핵보유국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은 민족의 머리우에 핵탄을 들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우리를 기어이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핵억제력보유가 자위적조치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면 하였지 같은 동포인 남조선인민들에게 핵폭탄을 떨구겠다고 위협한적은 한번도 없다.

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을 바라며 이 땅우에 정화가 깃들기를 갈망하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사물현상을 편견없이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진정을 의심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모략가들은 우리의 핵억제력이 동족을 겨냥하고있다고 여론화하고있다.

절코 무기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다. 어기에는 북남대결을 더욱 조장시켜 그속에서 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쩍어말하면 우리를 《핵위협》의 가해자로 만들어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저들의 핵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억지 시로 싸우게 만들고 그속에서 저들의 리익을 챙기는데 이골이 난 양키족속들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미국은 교의적으로 사실을 외곡하며 어떻게 하나 우리의 핵억제력을 남조선에 대한 《위협공갈》용으로 둔갑시켜 우리를 《핵범죄국가》로 몰아대려 하고있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의 가해자는 미국이다. 장장 수십년세월 우리 민족에게 핵위협공갈을 해온것도 미국이며 해마다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핵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면서 이 땅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도 미국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이러한 핵전쟁광증을 막고 전체 조선민족을 지키기 위한것이지 절코 동족상쟁용이 아니다. 모름지기 미국은 엄연한 사실을 외면시켜서는 안된다.

미국은 다른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떠들기 전에 저들의 범죄적행적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지구상에 핵악몽을 불어온 진범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탄을 떨구어 이 두 지역을 재더미로 만든 그때부터 미국은 핵만능론에 빠져 핵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이로 하여 미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가지고있는 나라로 되였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며 핵무기고를 끊임없이 현대화하고있다.

단순히 그 수를 놀여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자는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의 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침략적목적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고있다.

몇해전부터 미공군은 핵전략폭격기 《B-52》의 창가림막이 핵폭탄을 떨군 후 폭발시에 발산되는 열과 빛을 막는데서 제한성이 있다고 하면서 고열에 견디는것으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전략핵무력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는 《B-52》핵전략폭격기개조놀음은 미호전세력이 임의의 시각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미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핵공격계획을 작성해놓았으며 그것을 부단히 갱신하고있다. 미국이 1950년대 중엽에 벌써 우리 나라의 주요도시들을 포함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수천개 주요대상들과 지역들을 목표로 극악한 핵폭탄투하공격계획을 작성해놓고있었다는것이 공개된것은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 그때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 중국의 도시들을 핵공격대상으로 선정해놓았다. 이 계획실현을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 4000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개발도 획책하였다.

이것은 이번에 미국이 공개한 핵폭발모의시험이 조선반도뿐아니라 임의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것이며 저들의 핵무기의 대량살륙 및 파괴능력을 점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이라는것을 립증해준다.

인간도살을 폐락으로 삼고 아메리카대륙의 인디안들을 대량학살한 식인종무리들의 후예들은 인류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 하고있다.

미국은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전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어 구석기시대로 되돌려세울수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세계도처에 배치해놓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발악하고있다.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나 없다.

미국이야말로 인류멸살을 희하는 야만국가이며 핵피교석에 서야 할 세상에 둘도 없는 핵범죄국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핵위협이라는 말자체가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력사는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미치광이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국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리 학 남

제2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

제2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1월 30일과 31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수뇌자회의에서는 인권과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테로와 분쟁을 막으며 아프리카의 장래발전을 위한 전망계획리행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차드대통령 이드리스 데비 이쓰노가 아프리카동맹 새 의장으로 선거되였다.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는 테로위협사건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빠리에서 1월 26일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동시테로위협사건이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였다.

이날 인터네트에 시의 6개 학교들을 폭탄으로 테로할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이 실려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을 긴급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프랑스의 빠리에서 1일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테로위협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였다. 이날 인터네트에 3개의 고등학교들에 대한 폭탄테로가 있을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 실린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많은 경찰들이 폭발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색작전에 동원되였다 한다.

영국에서

영국 잉글랜드에서 1월 26일 테로위협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날 런던과 웨스트 미들랜드주, 론델주의 14개 학교들에서 폭탄테로를 단행하겠다고 위협하는 협박전화를 받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긴급대피하고 경찰들이 학교들을 봉쇄하는 등 분주탕을 피웠다 한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1일 테로위협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주의 9개 학교들에 폭탄테로를 단행하겠다는 어리전의 협박전화가 걸려와 수많은 학생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학교들이 폐쇄되였다. 이에 앞서 1월 29일 빅토리아주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경찰들이 수색작전에 동원되여 분주탕을 피웠다 한다.

네데를란드에서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월 28일 테로위협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나라 신문 《헤드 빠를》이 전한데 의하면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3건의 폭탄테로가 있을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된것과 관련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고 고도의 경계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피난민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

무장분쟁의 후파로 살길을 찾아 유럽으로 건너간 피난민어린이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해지고있다. 최근 유럽경찰기구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럽나라들에서 1만명이상의 피난민어린이들이 행방불명되였는데 그들중 대부분이 인신매매와 노예무역의 희생물로 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라이의 력사유적

ㄱ-610202(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농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